

# 광주 남구, 주민 참여 마을 복지사업 '눈길'

### 봉선1·2동, 월산동·주월 1동, 광주마을 복지공동체 사업 선정 '안주·안심 서비스'·'집들이 가는 날' 등 복지안전망 구축 기대

광주시 남구가 마을별로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9일 "광주시 주관 '광주마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에서 봉선1·2동과 월산동, 주월1동 등 4개동이 선정돼 마을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이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마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4개동 마을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들로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봉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고립가구의 치유와 돌봄을 위해 '안주(안주)·안심(안심) 서비스'를 선보인다. 봉선 1동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육식 내 미끄럼 사고 방지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어르신들

의 TV 시청을 돕는 어르신용 TV 리모컨을 제공한다. 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콩과 시루 등 반려식물을 기르는 심리방역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조사와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버극장' 운영 등 10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봉선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시일만 마을 돌봄 공동체를 구성,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꿈 성장을 위해 '1멘토 1멘티 매칭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 활동가가 돼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 마을 어르신과 장애인들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안부를 묻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 ■동별 사업

봉선1동	'안주·안심 서비스' 미끄럼 방지 매트·어르신용 TV 리모컨 제공 콩·시루 등 반려식물로 심리방역
봉선2동	1멘토 1멘티 매칭 사업
월산동	랜선 여행 '달피달팽이 마을 복지 홀스쿨링' '지피지기 선진지 견학' 맞춤 운동 '온택트 이웃돌봄' 이불 빨래 대신 '보송보송 세탁소'
주월 1동	조손·한부모 가구 등 지원 '집들이 가는 날' 주민이 고위험군 가구 확인 '복지신호등'

월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온(溫)택트'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랜선 여행 프로그램 '달피달팽이 마을 복지 홀스쿨링'과 '지피지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역 취약계층 200세대에 운동용품을 보급하고, 봉사단이 월 1회 맞춤형 운동을 실시하는 '온

(溫)택트 이웃돌봄' 프로그램과 이불빨래를 대신해주는 '보송보송 세탁소' 등 8개 사업을 선보인다.

주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최근 마을에 전입한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조손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집들이 가는 날'과 마을주민들이 직접 고위험군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복지신호등'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기간 채소 키우기 키트를 제공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네 슈퍼, 음식점, 가스 검침원, 119 안전센터 등과 연계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는 등 6개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내 구정장은 "마을 구성원간 연대와 협업을 통해 돌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무등산 무돌길 '국가 숲길' 만들자"

### 광주·전남 자치구 신청키로

무등산 무돌길을 국가 숲길로 지정받기 위해 자치구들이 나선다.

9일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무등산 인근 광주 북·동구와 화순·담양 등 4개 자치구가 산림청 국가숲길 운영·관리 활성화 계획에 따라 무등산 무돌길의 국가 숲길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6월 신설된 산림휴양법 제 23조 3(국가 숲길의 지정)을 근거로 산림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한 국가숲길을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역은 없지만 산림청은 올해 1분기 1차 국가 숲길을 지정할 예정이다. 대관령 숲길, 백두대간트레일, 지리산둘레길, DMZ편지길·둘레길 등도 유력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 숲길 지정 기준은 숲길의 거리, 행정구역 등 국가차원 관리가 필요한 숲길이다. 세부적으로는 ▲숲길 50km이상 ▲돌이상·사·도에 걸쳐 있는 숲길 ▲탐방객수 3년 평균 30만명 이상 등이 기준이다.

이번 신청은 광주 자치구인 북구(11.88km)·동구(16.1km) 및 전남의 담양(6.08km)·화순(17.74km) 등 4개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총 51.8km의 숲길인 무등산 무돌길이 국가숲길 지정기준인 거리, 규모, 품질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삶의 질' 지산2동·'건강상태' 학동높다

### 광주시, 동구민 건강 요구도 조사...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 치매·취약계층 관리·뇌혈관질환 順

광주시 동구가 실시한 '건강요구도 조사'에서 마을별·거주 유형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균형감 있는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이 거주 지역의 환경 및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좌우된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9일 동구에 따르면 건강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간 19세 이상 동구지역 거주민 838명을 대상으로 '건강요구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동구 13개 동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 인식도에서 뚜렷한 편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을(동)의 삶의 질'은 지산2동(4.00점)이 가장 높고, 충장동(3.22점)이 가장 낮았다.

'동(마을) 건강상태'는 학동(3.61점)이 가장 높고 충장동(3.05점)이 가장 낮게 인식됐고, '본인의 건강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산2동(3.66점) 주민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충장동과 지원1동(2.66점) 주민이 가장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 '가족의 건강수준'에 대한 인식은 산수1동(3.88점) 주민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지원1동(2.82점) 주민이 가장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실제 거주유형별로 살펴본 마을의 삶의 질 및 건강수준 인식도에서 아파트 거주민은 각각 3.71점(5점 만점), 3.61점으로 긍정적이었으나, 단독주택 등 거주민은 각각 3.42점, 3.30점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동구는 구도심 주변, 독거어르신 등이 거주하는 마을(동)일수록 마을(동)환경 인식도가 낮았고, 최근 재개발 및 도시개발로 인해 정주여건이 개선

된 마을(동)은 일반환경은 물론 건강환경 수준 인식도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 지역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동구 주민들은 편차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건강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으로 주민들 참여활동(42.6%),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제공(33.5%), 교육프로그램 운영(19.4%) 등을 요구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동구는 자치구 특성상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로 치매(4.56점), 장애인·취약계층 건강관리(4.46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4.4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절주, 금연, 신체활동 비만예방, 영양, 구강보건, 모자보건 야토피·천식 순으로 응답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및 건강요구도, 환경 인식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건강 친화적인 사업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마을(동)별·거주유형별 주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중년 '인생 2막' 돕는다 광주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최근 중장년층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2021년도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광주서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구청 제공>

#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 북구 '자산형성' 가입자 모집

광주시 북구가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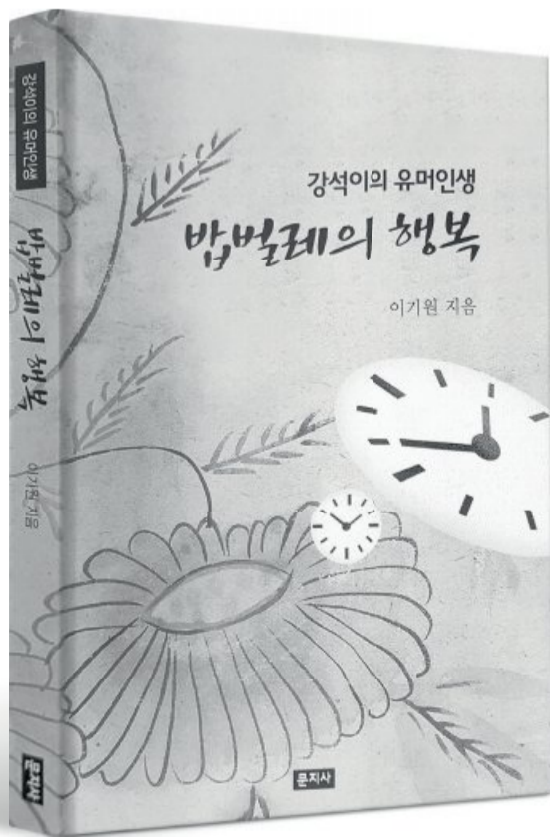
9일 북구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 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며 통장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근로를 조건으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최대 28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가 매월 20만원(5만 원 또는 10만 원 선택 가능)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23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이 3년 동안 저축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만기 시점에 최대 23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모집기간은 오는 18일 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 II와 청년저축계좌는 오는 5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정가 12,000원

##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 '밤벌레의 행복'

###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